

해외시장동향	미국	뉴욕 aT
--------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농산물 프로모션

⊙ 배경

- 미국 업체의 페이스북 전세계 이용자 수는 5억 명을 넘어섰으며, 트위터는 친구에서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최근 소식을 접하면서 친구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자리 잡음. 이에 최근 식품 관련 회사 및 슈퍼마켓들이 소셜 미디어를 프로모션 수단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 농산물 시장 협회 회장 Bryan Silberman은 농산물 산업 시장이 웹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그는 이러한 방법이 보통의 광고 방법에 비해 가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막대한 홍보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산물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1년 전에 비해 웹을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 밝힘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회사의 예

- 바하스 슈퍼마켓(Bashas' Supermarket)
 - 바하스(Bashas')는 애리조나에 130여개의 체인을 보유한 슈퍼마켓 업체임. Bashas'의 영양사 바라라 루스(Barbara Ruhs)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슈퍼마켓의 최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음. 현재 그녀의 트위터에는 지역 방송 리포터들을 포함한 2000명의 팔로워(트위터 친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트위터에 바하스 슈퍼마켓의 할인정보를 올리면 리포터들이 그 소식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있음. 그녀는 또한 전국의 식품생산공급업체 및 회사의 팔로워로 활동하면서 소비자가 관심있어 할 만한 행사를 발견할 때마다 그 소식을 팔로워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건강증진을 위한 생산재단(Produce for Better Health Foundation(PBH))

- PBH는 공식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트위터를 이용함. PBH는 트위터에 농산물 관련 정보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의 소식란, 슈퍼마켓 칼럼, 조리법 란 등의 링크를 걸어놓아 소비자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델몬트(Del Monte)

- 델몬트사는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콘테스트, 슈퍼마켓 홍보를 복합 활용함. 올해 여름 델몬트사는 여행상품을 경품으로 걸고 소비자가 응모하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슈퍼마켓에서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델몬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품을 신청을 하게하는 방법을 사용함.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비자들이 델몬트사의 페이스북에서 조리법 공유, 설문조사 참여, 퀴즈 맞추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한 후 경품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멕시코 하스 아보카도 수입협회(Mexican Hass Avocado Importers Association(MHAIA))

- MHAIA는 자사의 아보카도를 이용한 조리법, 아보카도 선택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선택할 때 MHAIA사의 제품을 택할 확률을 높임. MHAIA의 디지털 협력사 부사장 Tom Edwards는 현재 미국에서 5천만 명 가량이 MHAI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트렌드라고 밝힘

◎ 대응 방안

- 미국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다수의 이용자, 낮은 비용, 접근성 용이로 인한 효과로 인해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미디어뿐 아니라 기업들이 점차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강점 때문. 소셜 미디어는 마케팅의 핵심인 입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미국인들과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됨.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한식 및 한국상품의 홍보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로 한식 또는 한국상품 관련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한식 조리법, 한식당 등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늘려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전

달할 수 있음. 또한 주기별로 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으로 한식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식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불경기에는 중저가 소량상품으로

◎ 배경

- 미국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1달러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달러 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저가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점이 발전하고 있음

◎ 상황 전반

-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 심포니 IRI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1년간 달러 스토어 방문객 수는 1년 전에 비해 2.6% 증가함. 3대 달러 스토어인 Dollar General, Family Dollar, Dollar Tree의 점포 매출은 10분기이상 증가세
-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판매업체인 월마트는 최근 5분기동안의 점포 매출이 줄었으며, 1년 전에 비해 방문객수는 7% 감소함. 달러 스토어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보이자 월마트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저렴하고 소량포장의 제품 주문을 늘림. 또한 실업률이 높은 일부지역에서 1달러 미만 제품 코너를 만듦
- 불경기에 대형 식품체인점 Bottom Dollar Food는 계속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Bottom Dollar Food는 중저가 식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전문체인점으로, 벨기에에 본사를 둔 Food Lion에 운영되며 현재 이 회사는 미국 75개 식품체인회사 중 10위임

◎ 분석

- 이와 같은 상황은 높은 실업률과 소득향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일어난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소량의 저가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을 보여줌

◎ 대응 방향

- 소매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인 Customer Growth Partners의 Craig Johnson사장은

사람들이 수중의 돈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소량포장의 제품을 찾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맞춘 소량포장제품을 개발하여 대량제품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시장 동향

□ 미국 세관당국 수입품 통관심사 강화

○ 배경

- 최근 들어 모조품 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우려가 겹쳐 미 세관 당국에 의한 수입품 정밀검사 비율이 늘어남
- 보통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사전통관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2-3일 내에 받을 수 있으나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면 최소 10일 이상 걸림. 이 경우 PTT(Permit to Transfer)를 작성해 물품을 빨리 인도받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통관을 보류할 경우 효과가 미미함

○ 개요

- 정밀검사를 받는 수입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중국 화물과 같이 들어오면 자신의 물품에 이상이 없어도 함께 검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당 700-800달러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해야 함
- 검사 품목에 포함될 경우 물품이 창고로 옮겨져 포장을 뜯고 검사받게 되며, 보통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음

○ 여파 및 영향

- 현재 CBP의 정밀검사를 받는 비율은 1년 전 10당 1건 정도에서 3-4건으로 증가함. 또한 통관 지연에 따른 클레임 제기는 1년 전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최근 한 달 최소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퀸즈의 한 회사가 한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중 같은 컨테이너에 실린 다른 화주의 물품이 통관 심사에 걸려 7월 말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것이 한 달 이상 지체

되는 일이 발생. 또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정밀 검사에 의해 1주일 이상 물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남

- 미국의 통관심사 강화는 중국산 야채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침. 나일스 H마트 채소부의 박상원 차장은 “중국산 상품들의 통관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이 많이 뛴. 특히 깐 마늘은 중국산이 많은데 3~4달 전 2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랐다”고 함

◎ 대응 방안

- 수입업체는 통관시 수입 통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함. 서류 작성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만약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PTT(Permit To Transfer)를 작성하여 물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처가 필요함

□ 미국 이상 기온 야채값 급등

- 미국 동부지방의 이상기온에 의해 채소값이 크게 오르고 있음. 대추와 고구마, 포도가 첫 출하를 하고 햇대추는 8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 산 라고포도도 8월부터 판매중임
-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한국산 햇과일도 들어옴. 한국산 신고배는 LA와 뉴욕에서 통관돼 9월 초부터 판매가 시작됨. 하지만 지난 5월 한국을 덮친 냉해가 발육에 지장을 줘 지난해보다 알의 크기가 작아짐. 한국산 포도도 9월 중순 나옴
- 한편 올 여름 이상기온이 최근 채소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현지 생산 배추, 무, 파의 경우 20% 가격 상승. 중부시장에 따르면 8월 5단에 1달러로 판매되던 파가 3단에 1달러로 오름. 배추는 지난해 1박스 12~3달러 선이었던 것이 20달러로, 무는 박스당 2~3달러가량이 뛴. 이와 같은 야채값 폭등은 올해 동부지방에 95~100도가 넘는 고열현상과 잦은 태풍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임

□ 미국 판매업체 재무담당자들 어려운 경기가 계속될 것 전망

- 미국 판매업체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카고 소재의 회계 및 컨설팅 회사 BDO USA가 2010년 8월 및 9월에 걸쳐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9%의 CFO들만이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봤으며 82%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78%에 이르는 대부분의 판매업체 CFO들은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줄고 소비자의 구매의욕 및 지출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그 외 주택시장 회복(10%), 미국 및 전 세계 경기회복(9%)을 경기회복을 위한 요소로 꼽음
- 또한 CFO들의 76%가 실업률을 소비자 구매의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봤으며 이는 2009년 64%의 수치에 비해 상승한 수치임. 그 외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 신용 및 빚 수준(14%), 주택 시장 약세(4%), 시장 불안정(4%)이 언급됨
- BDO USA의 소비자 상품 및 판매 연구부의 국제 담당자 Al Ferrara는 구매 의욕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시장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러나 9.6%의 실업률은 경제가 약간이나마 회복된 것을 보여주며 할인율이 높고 가치 있는 상품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밝힘

3. 과채류 도매가격 (헌츠포인트 터미널마켓기준 2010.9.15)

(단위: US\$)

품목	사이즈	최고가격	최저가격	원산지
사과 레드딜리셔스	80개/40LB	26	21	워싱턴
사과 골든딜리셔스	80개/40LB	28	24	워싱턴
사과 그라니스미스	80개/40LB	35	22	칠레
사과-후지	80개/40LB	35	26	워싱턴
호수이배	14개/10LB	14	14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오렌지	88개/38LB	22	20	캘리포니아
딜감	18개/5LB	4	3	칠레
키위	27개/1layer	10	9	뉴질랜드
딸기	8 1-Pt	24	14	캘리포니아
레몬	140개/38LB	30	25	캘리포니아
자몽 레드	56개/34LB	15	15	캘리포니아
양배추	1 3/4Bushel	18	16	뉴욕
배추	30LB	22	16	캘리포니아
마늘	30LB	65	48	멕시코
양파	50LB	18	14	캘리포니아
토마토	6x6/25LB	18	12	캘리포니아
표고버섯	3LB	16	8	펜실베이니아
감자	80개/50LB	18	17	아이다호

파	48Bu/13LB	16	14	캘리포니아
고구마	40LB	45	38	캘리포니아
파프리카	1 1/9Bushel	26	16	캘리포니아

(자료:USDA)

4. 미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0년 7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7월	2010년 7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 출 액	56,570,182	65,196,379	15.2
○ 수 입 액	48,225,225	54,462,516	12.9
☐ 무역수지	8,344,957	10,733,863	28.6

자료: FAS. USDA

☐ 2010년 7월 미국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7월	2010년 7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농림수산물제품	55,527,534	62,159,680	12
○ 소비재	27,527,406	30,582,772	11
○ 중간소비재	8,531,034	9,601,625	13
○ 1차농산물	6,547,980	7,501,547	15
○ 수산물	7,302,309	7,697,164	5
○ 임산물	5,618,805	6,776,572	21

자료: FAS. USDA

☐ 주요 국가별 2010년 7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태국
총수입액	54,462,516	14,039,994	8,747,361	4,648,793	2,334,054	2,311,404
전년 동기대비(%)	12.9	12	14	14	19	-

자료: BICO USDA

□ 2010년 7월 미국 수입 동향 분석

- '10년 7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은 54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
 - 쌀은 3% 하락, 차류 20% 상승
 - 신선과일은 16%, 신선채소는 27%상승, 주스류는 9%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4%, 스낵류는 18%로 지속적인 상승세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8%상승, 종자류 2%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코코아, 사탕수수 및 사탕무, 직접 소비재는 신선과채류, 인스턴트커피, 향신료, 견과류로 경기안정 기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양상으로 소비재 수입물량이 늘어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사료 -27%, 밀 -27%, 담배 -24% 등의 하락률을 보임. 중간소비재인 당류 -6%, 종자류 -2%, 직접 소비재는 주스류 -9%, 유제품 -11%, 치즈류 -8%, 신선육류 -25%등의 하락률을 보임.

□ 2010년 7월 미국 수출동향 분석

- 2010년 7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6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 1차 농산물인 대두를 포함해 쌀, 담배, 벌크농산물, 사료용 곡물, 면, 중간소비재인 동물성유지, 당류, 밀가루 그리고 최종소비재인 유제품, 청과, 견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함
 - 1차 농산물은 10% 상승, 중간소비재는 26% 상승, 최종소비재는 12%로 각각 증가함.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08	'09	7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254,451	249,526	130,884	168,229	28.5
---------	---------	---------	---------	------

자료: FAS, USDA

□ 2010년 7월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16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31백만 달러 대비 28.5% 상승함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198만 달러에서 338만 달러로 71% 증가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114십만 달러에서 176십만 달러로 54% 증가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115백만 달러에서 145백만 달러로 26% 증가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236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15%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사료, 종자류, 당류, 차류, 스낵류, 원예작물/철화, 향신료, 주스류, 과일채소 가공품, 낙농제품, 주류, 커피류, 쌀 등
 - 주스류 :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알로에 등 신선채소류가 함유된 주스(192%)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
 - 향신료: 매운맛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춧가루(1,236%), 카레(1,215%), 후춧가루(173%) 등의 향신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주요 감소품목은 치즈류, 식물성유지, 견과류, 식물성유지, 신선과채류 등
 - 신선과일류: 4대 배 수출국가인 아르헨티나, 한국, 칠레, 중국의 배 전체 수출은 물량감소로 20%하락했으며 한국역시 17%하락, 키위는 작년7월동기에 비해 72%증가
 - 인삼뿌리 : 인삼뿌리는 7월 전년 동기에 비해 12%하락. 대만을 제외한 홍콩, 중국, 캐나다 등 인삼뿌리 수입의 전체적인 물량은 늘어남.
 - 신선채소류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버섯, 마늘 등의 수입물량은 감소

<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7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4,844,151	19,244,318	11,284,178	12,665,110	12
	멕시코	11,174,842	585,804	7,436,712	8,568,367	15
	중국	6,310,997	5,190,748	2,956,729	3,450,202	17
	칠레	2,716,288	2,640,340	1,861,459	2,007,172	8
	계	45,046,278	27,661,210	24,509,696	27,898,428	14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6,852,344	4,530,467	2,603,922	3,399,102	21
	중국	2,854,944	2,320,199	1,290,692	1,552,604	31
	브라질	812,352	530,087	321,381	361,546	20
	칠레	657,457	506,498	288,280	285,996	-1
	계	11,187,589	7,879,664	4,504,275	5,599,248	24
○ 벌크농산물전체	캐나다	2,824,079	1,827,158	1,203,743	992,152	-18
	인도네시아	2,098,859	1,222,669	680,951	1,273,646	87
	브라질	1,076,044	1,143,220	692,670	829,336	20
	콜롬비아	819,302	746,823	456,802	396,684	-13
	계	6,844,953	4,938,130	3,034,166	3,491,818	15
- 사료용 곡물	캐나다	818,244	482,453	311,264	219,849	-29
	독일	24,270	10,383	5,956	0	-
	멕시코	10,909	8,393	6,636	3,943	-41
	핀란드	6,072	4,817	0	7,974	-
	계	859,495	506,048	323,856	231,766	-28
- 쌀	태국	341,227	370,728	211,227	230,035	9
	인도	125,442	113,562	59,101	65,882	11
	이집트	2,101	31,553	31,362	255	-99
	파키스탄	30,525	21,214	11,918	12,882	8
	계	313,608	313,608	313,608	309,054	-1
- 담배	브라질	331,213	305,873	221,718	218,942	-1
	터키	94,634	192,812	135,891	51,105	-62
	말라위	34,733	41,171	19,487	20,349	4
	캐나다	26,694	37,891	4,542	2,185	-52
	계	487,274	577,747	381,638	292,581	-23
- 차(허브차포함)	캐나다	78,999	95,433	61,587	69,568	13
	중국	88,802	76,898	43,897	51,507	17
	인도	51,045	52,813	25,934	30,891	19
	아르헨티나	45,421	51,410	34,048	40,500	19
	계	264,267	276,628	165,466	192,466	16
○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캐나다	5,649,223	4,140,020	2,533,174	2,655,468	5
	아일랜드	2,037,818	1,778,351	1,085,252	1,170,110	8
	말레이시아	1,602,824	1,159,376	674,584	837,450	24
	멕시코	1,006,766	1,097,111	659,603	651,720	-1
	계	10,296,631	8,174,858	4,952,613	5,314,748	7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1,456,590	994,181	576,126	618,944	7
	이탈리아	656,198	542,063	294,929	296,368	-
	스페인	230,455	184,094	110,764	125,796	14
	튀니지	103,819	99,906	74,124	55,909	-25
	계	2,447,062	1,820,244	1,055,943	1,097,017	4
- 종자류	칠레	166,376	193,957	186,918	194,802	4
	캐나다	196,455	173,280	118,168	94,003	-20
	네덜란드	61,276	75,593	42,614	43,101	1
	아르헨티나	93,965	71,799	70,381	32,470	-54
	계	518,072	514,629	418,081	364,376	-13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7월		
		금액	금액	'09	'10	%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당류	멕시코	403,906	435,240	314,504	224,104	-29
	캐나다	333,473	290,667	180,618	176,852	-2
	과테말라	82,661	62,697	38,353	60,203	57
	브라질	64,235	26,069	10,362	20,549	98
	계	884,275	814,673	543,837	481,708	-11
○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멕시코	9,429,052	9,790,128	6,285,643	7,526,686	20
	캐나다	9,518,456	8,745,919	4,943,340	5,618,388	14
	이탈리아	2,474,998	2,224,176	1,158,096	1,271,858	10
	중국	2,492,366	2,068,047	1,218,557	1,329,384	9
	계	23,914,872	22,828,270	13,605,636	15,746,316	16
- 스낵류 (초콜렛포함)	캐나다	2,473,873	2,311,635	1,264,267	1,512,622	20
	멕시코	898,521	1,044,238	563,138	709,322	26
	독일	202,761	188,137	75,788	95,077	25
	중국	185,643	166,433	79,322	84,647	7
	계	3,760,798	3,710,443	1,982,515	2,401,668	21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70,434	543,135	372,499	264,378	-29
	캐나다	106,308	86,599	50,806	60,336	19
	호주	103,049	80,469	49,992	52,421	5
	네덜란드	81,034	70,797	37,271	32,054	-14
	계	960,825	781,000	510,568	409,189	-20
- 신선채소	멕시코	2,941,594	2,841,861	1,928,874	2,520,057	31
	캐나다	925,150	849,995	488,644	579,788	19
	페루	184,341	197,436	61,253	79,520	30
	중국	91,097	75,105	37,829	71,819	90
	계	4,142,182	3,964,397	2,516,600	3,251,184	29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82,610	1,928,523	1,431,044	1,737,209	21
	칠레	1,245,144	1,251,467	984,305	1,139,862	16
	코스타리카	424,558	430,724	276,471	317,489	15
	캐나다	150,591	146,175	28,929	34,279	18
	계	3,502,903	3,756,889	2,720,749	3,228,839	19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156,286	1,087,165	640,559	627,765	-2
	멕시코	807,692	810,748	509,182	551,099	8
	중국	813,930	746,140	447,472	479,971	7
	태국	381,839	379,074	223,945	228,996	2
	계	3,159,747	3,023,127	1,821,158	1,887,831	4
- 주스류	중국	675,381	356,957	234,077	207,710	-11
	브라질	331,375	304,232	164,174	160,839	-2
	멕시코	206,067	173,062	110,302	122,283	11
	아르헨티나	216,796	141,531	87,502	58,042	-34
	계	1,429,619	975,782	596,055	548,874	-8
- 건과류	베트남	277,253	258,282	121,207	158,141	30
	멕시코	176,613	219,375	81,688	79,113	-3
	인도	242,454	174,884	102,270	109,172	7
	브라질	132,474	155,928	93,844	94,686	1
	계	828,794	808,469	399,009	441,112	11
- 주류 (와인과맥주)	멕시코	1,578,063	1,535,791	957,191	943,659	-1
	이탈리아	1,343,180	1,230,299	654,626	729,649	11
	프랑스	1,459,284	991,639	512,209	513,668	-
	네덜란드	1,062,954	966,168	598,447	598,566	-
	계	5,443,481	4,723,897	2,722,473	2,785,542	2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7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원예작물/절화	콜롬비아	515,646	516,514	336,829	365,572	9
	캐나다	270,648	247,435	146,743	171,659	17
	네덜란드	236,951	195,029	91,737	91,170	-1
	에콰도르	134,331	118,641	82,055	90,131	10
	계	1,157,576	1,077,619	657,364	718,532	9
- 커피(구운것/인스턴트)	캐나다	131,155	172,837	93,555	137,727	47
	멕시코	96,919	106,704	53,858	76,912	43
	콜롬비아	42,333	95,917	38,297	76,314	99
	브라질	105,046	89,130	52,148	45,134	-13
	계	375,453	464,588	237,858	336,087	41
- 향신료	인도	179,470	129,485	78,121	90,104	15
	인도네시아	130,525	100,241	51,718	62,988	22
	캐나다	94,496	82,063	50,993	45,811	-10
	중국	86,821	81,393	44,812	62,619	40
	계	491,312	393,182	225,644	261,522	16
- 인삼(뿌리)	홍콩	2,756	5,563	3,369	3,975	18
	중국	9,601	4,741	2,802	4,544	62
	대만	2,787	3,221	1,816	1,761	-3
	캐나다	1,896	1,485	838	1,138	36
	계	17,040	15,010	8,825	11,418	29
- 배	아르헨티나	36,205	38,060	38,060	32,319	-15
	한국	21,670	23,356	5,598	4,660	-17
	칠레	22,164	18,955	18,747	14,381	-23
	중국	12,333	10,056	6,064	3,185	-47
	계	92,372	90,427	68,469	54,545	-20
- 감귤(만다린)	스페인	87,936	72,409	21,025	15,981	-24
	칠레	17,385	28,899	17,716	20,208	14
	모로코	26,116	22,985	12,355	16,630	35
	페루	8,640	11,435	5,301	5,515	4
	계	140,077	135,728	56,397	58,334	3
- 포도(신선)	칠레	679,137	702,056	632,165	695,923	10
	멕시코	224,769	285,870	284,051	463,171	63
	페루	26,268	31,682	11,997	28,726	139
	브라질	38,663	22,237	0	0	-
	계	968,837	1,041,845	928,213	1,187,820	28
- 딸기(신선)	멕시코	116,806	151,773	117,361	177,306	51
	캐나다	499	755	287	488	70
	페루	107	403	0	74	-
	중국	99	60	36	0	-
	계	117,511	152,991	117,684	177,868	51
- 밤	이탈리아	4,698	5,530	146	218	50
	한국	992	3,225	449	484	8
	중국	3,941	2,801	933	1,088	17
	포르투갈	262	381	0	0	-
	계	9,893	11,937	1,528	1,790	17

자료: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단위: US천불, %)

품목	'08	'09	7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54,451	249,526	130,884	168,229	29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289	4,088	2,364	2,003	-15
○ 벌크농산물전체	5,822	4,449	1,976	3,384	71
- 차(허브차포함)	3,713	3,365	1,347	2,671	98
- 쌀	380	790	465	484	4
- 사료용 곡물	22	60	6	69	962
- 담배	0	0	0	0	-
○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21,044	21,335	11,376	17,556	54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지제외)	1,786	1,826	1,101	910	-17
- 종자류	1,413	928	315	2,308	633
- 당류	1,091	892	304	1,036	240
○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222,296	219,654	115,167	145,286	26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3,343	24,669	5,708	4,665	-18
- 스낵류 (초콜렛포함)	21,344	19,382	9,891	16,824	70
- 과일채소 가공품	18,494	18,891	10,744	14,823	38
- 신선채소	7,794	7,952	5,063	5,014	-1
- 낙농제품 (치즈제외)	9,723	7,559	5,434	6,873	26
- 주류(와인과맥주)	5,312	5,815	3,028	3,643	20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3,794	3,682	1,919	2,192	14
- 견과류	1,042	3,550	674	571	-15
- 향신료	2,678	2,787	1,500	2,365	58
- 주스류	2,097	2,531	1,330	2,060	55
- 원예작물/절화	2,378	1,199	616	987	60
- 밤	992	3,225	449	484	8
- 배	21,670	23,356	5,598	4,660	-17
- 포도	900	1,088	0	0	-
- 딸기(신선)	36	9	9	0	-
- 인삼(뿌리)	697	733	435	380	-13

자료: USDA BICO Report

5. 경제전망

- 시장조사기관 톰슨로이터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형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된 8월 매출 3.3%상승. 이는 예상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임. 이는 개학시즌과 함께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린 늦더위로 인해 여름용품 판매가 호조를 띄었기 때문. 대형 소매점 27개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예상보다 판매가 늘어남.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소비자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기본적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
- 8월 소매판매가 전월에 비해 0.4%증가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밝힘.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은 시장예측전문기관들이 추정한 0.3%를 능가함. 상무부는 지난달 자동차와 부품판매가 0.7%줄었으나 여타 품목들이 0.6%증가해 소비경기가 고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
- 톰슨로이터스와 미시간 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월 소비자 경향지수가 7월의 68.9포인트에 비해 하락한 68.2포인트로 나타남.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인 66.6포인트에 비해 높은 수치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전문가들은 월말 소비자 경향지수로 66.6포인트보다 조금 높은 67.0포인트를 예상했으나, 이는 연 \$75,000 이하 소득 가구에 의한 것임. 소득 상위계층은 연소득 250,000의 상위계층에 대한 연방세 감소 방안 지연에 대한 우려로 좀 더 낮은 경제 전망수준을 보임
- 8월 실업률은 9.6%로 전월대비 0.1% 오름. 노동부는 실업률이 4개월 만에 상승한 것은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구직대열에 합류하면서 실업률이 소폭 올라간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전문가들은 8월 고용상황을 실업사태의 완화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2008~2009년 총 8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 들어 민간부문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76만 3000개에 이름
-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경제 회복길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봄. 그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뒤의 회복이 일반적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미국경제가 지금 그와 매우 유사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한 9%대의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더블딥(반짝 경기회복에 이은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음